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2. 2.(토) 15:00 배포 2023. 12. 2.(토)

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금)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2.(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를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이번주(11.29)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과제가 예타를 통과하며(1,172억원, ‘24~’28년) 민관 합동으로 흑연을 쓰지 않는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금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263)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3-56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美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개요

1. 회의 배경

□ 美 재무부는 **IRA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상세 규정을 발표**한바, 이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필요

2. 회의 개요 및 논의

□ **일시**: 2023. 12. 2(토), 15:00 ~ 16: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1차관, 첨단산업정책국장, 통상정책국장,

○ **(민간)**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3. 세부 일정(안)

시간(잠정)	세부 일정	비고
15:00-15:03 (3분)	모두발언	1차관
15:03-15:08 (5분)	美 재무부 FEOC 규정 설명	통상정책국장
15:08-16:28 (80분)	FEOC에 따른 영향 및 우리 입장 논의	참석자
16:28-16:30 (2분)	마무리 발언	1차관